

땅 소유자 이름이 '금곡일이'? ...아직 남아 있는 일제 잔재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로 남아 있는 전남 땅 상당수 이의제기 없으면 별도 절차 없이 국고로 편입될 듯

전남도내 토지 가운데 아직도 일제강점기 거주했던 일본인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는 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과 지적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공공 및 민간개발 사업 등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해왔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일본식 이름의 토지소유주는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순수' 일본인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순천 대대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고시에서는 순천시 대대동 594번지 면적 774㎡의 토지의 소유자가 금곡일이로 돼 있으며, 광양 수어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등 세목(변경) 고시에서는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961-1번지 53㎡, 청암리 954-1 7㎡, 청암리 959 2486㎡ 등 3개의 필지 소유주가 각각 황산형의, 황전고광, 송본도생 등으로 기재

돼 있다.

이 밖에도 순천 송광천 정비사업 시행 계획 고시에서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131 10㎡의 소유주는 압본청광이다.

이들 토지는 낮은 개발 가치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토지 거래나 용도 변경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곳이다.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거래가 활발한 도시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반대의 전남지역 곳곳에는 이러한 일본인 소유 토지가 상당수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인 소유 토지는 소유자의 자손이나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간편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유가 된다.

토지수용고시 및 공고를 통해 해당 부지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수렴한 뒤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만, 이들 토지는 그대로 수용되며, 그 비용은 국고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으나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면적도 작고, 가격도 싸 관심을 갖는 유족이나 이해관계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

로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100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도를 디지털적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며, 전체 예산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도시지역을 우선해 실시하기 때문에 전남과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앞으로 10년 이상 상당수 일본인 토지소유자 이름은 토지대장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목포~개령 '마도1호' 800년 만에 항해

곡물·도자기 나르던 조운선 문화재청 오늘 목포서 진수식

지난 2010년 충남 태안 근흥면 마도 해역에서 수중 발굴된 고려 시대 선박인 '마도 1호선'이 800년 만에 복원돼 다시 바다로 향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25일 "고려 시대 조운선(漕運船)인 마도 1호선을 실물 크기로 복원, 26일 오후 3시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인근 광장에서 진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도 1호선 발굴 당시 배 안에서는 각종 곡물류와 도자기, 대나무 제품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다. 특히 함께 발견된 목간(木簡)과 죽찰(竹札)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1208년 해남·나주·장흥 등지의 지방 향리가 권력자에게 보내는 물품을 신고 개령으로 향하던 조운선임이 밝혀

졌다.

마도 1호선은 당시 절대연대가 확인된 최초의 고려 시대 선박이다. 길이 15.5m, 너비 6.5m, 높이 3.2m의 규모로, 현재 용량으로 약 30t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평평하고 활처럼 치솟은 저판(底板·밑판), 휘어있는 통나무를 그대로 붙인 외판(外板·배의 외곽을 이루는 판), 대나무를 사용해 만든 1개의 돛, 짐을 많이 실기 위해 배전(배 앞 가장자리)을 넓게 한 것 등이 특징이다.

한편 진수식은 전남 도립국악단과 목포시립무용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배서낭(배를 지키는 신) 모시기, 뱃고사, 돛 올리기, 배 띄우기, 항해 순으로 진행된다.

복원된 마도 1호선은 앞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야외에 전시된 후 태안에 '서해수중유물박물관'(2017년 완공 예정)이 건립되면 이동해서 전시된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6일 오후 3시 목포 연구소 옆 해변 광장에서 800년 만에 복원한 고려 시대 조운선(漕運船)인 '마도 1호선' 진수식을 진행한다. '마도 1호선'은 지난 2010년 충남 태안 마도 해역에서 수중 발굴됐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끝나지 않는 AI공포...철새서 항체 검출

전북·충남·충북·경기사 발견 농식품부 전국 차단방역 강화

일본과 유럽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검출되는 등 전세계로 AI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 들어온 철새에서도 최근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안성천에서 포획한 철새에서 지난 13일 H5N3형 저병원성 AI를 검출했고 4~17일 검사에서 전북과 충남, 충북, 경기 등에서 H5형 항체를 잇따라 검출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소독과 차단방역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철새 이동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웃한 일본의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예찰·소독 강화와 일일 점검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야생조류 유입방지를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축사 주변에 사료를 비치하지 않도록 하며 농장 안팎에 생식화를 살포하는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인들에게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후 차량, 신발 등의 세척·소독 조치를 한 뒤 귀가하되 가급적 가금류가 방문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한빛원전 핵 폐기물' 1면서 계속

▽안전성 확보 대책, 이송 규정 없어 논란=원자력환경공단 측은 올전~월성구간에 대해 해상운송 시험운항을 한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어민들은 영광 앞바다는 조건이 다른 만큼 별도의 시험운항 등 충분한 사전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해안과 달리 영광 앞바다는 조수간

핵 폐기물 이송수단 법제화 시급하다

만의 차이가 크고 수심이 낮아 선박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핵폐기물을 실은 선박이 운항하려면 수심이 최소 5m 이상이어야 하는데, 영광은 밀물 때가 아니고서는 수심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중저준위 핵폐기물 이송 방법(수단)이 법제화돼 있지 않은 점과 이송시 규제 기관에 사전 허가·승인 받을 의무가 없다는 점도 위험성을 감안할 때 큰 논란거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후위원장)은 "원안위의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우리 법에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이송 방법이나 수단을 규정한 법규가 없고 심지어 이송 전 규제기관 원안위에 승인·허가·보고할 사항도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한마디로 사업자인 한수원과 운반책임자를 맡고 있는 원자력환경공단이 알아서 하라는 얘긴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지자체 혈세 낭비 막는다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지방재정법·시행령 29일 시행

앞으로 자치단체가 경전철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국제행사·공모사업 유치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

된다고 25일 밝혔다.

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이 제한된다.

투자심사 대상에 자체사업 외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이 추가되고,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시력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2015 선견지명 부동산 시장 전망과 분석 무료 대 특강

부동산 최고 실무 전문가 김영표 대표의 확실하게 성공하는 부동산 성공투자 비법!!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4. 11. 26(수)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 / 의 / 내 / 용

- 1 2014년, 본격적 부동산 회복시장의 신호탄을 쏘았다 - 최경환 노믹스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 2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 전략
- 3 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투자처 매물분석 및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권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집필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